



보도시점 (전매체) 8.7(수) 08:00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한다.

-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

-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 경영·전략·기술·투자 등 분야별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 도입
-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정책 집중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8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선발 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투자社, 연구기관, 컨설팅社, 자문기관 등 다수의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맞춤형으로 밀착지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한다.

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 VC 등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발표와 심층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와 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하였다.

(전략 2)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밀착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로 ‘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되어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개발 전략수립·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투자유치 네트워킹은 IR 노하우, 피칭스킬 등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 후,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 VC 등 글로벌 투자사 등과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하여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별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지역별 해외거점(GBC, KSC)과 현지 전문가, 현지 기업인 등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현지화, 투자유치 활동, 거래처 확보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전략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스케일업(Scale-Up)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스케일업(Scale-Up)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용자범위·대출 기간 등 용자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P-CBO를 연계 지원*한다.

* P-CBO의 중점지원대상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포함

그리고,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우선,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더하여 상용화·고도화를 위해 스케일업 팁스, 수출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자금,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 (수출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1%p), (단기수출보험) 보험 가입한도(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며, 일방향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전종훈 (044-204-7482)
			주무관	신광현 (044-204-743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